

2024년 0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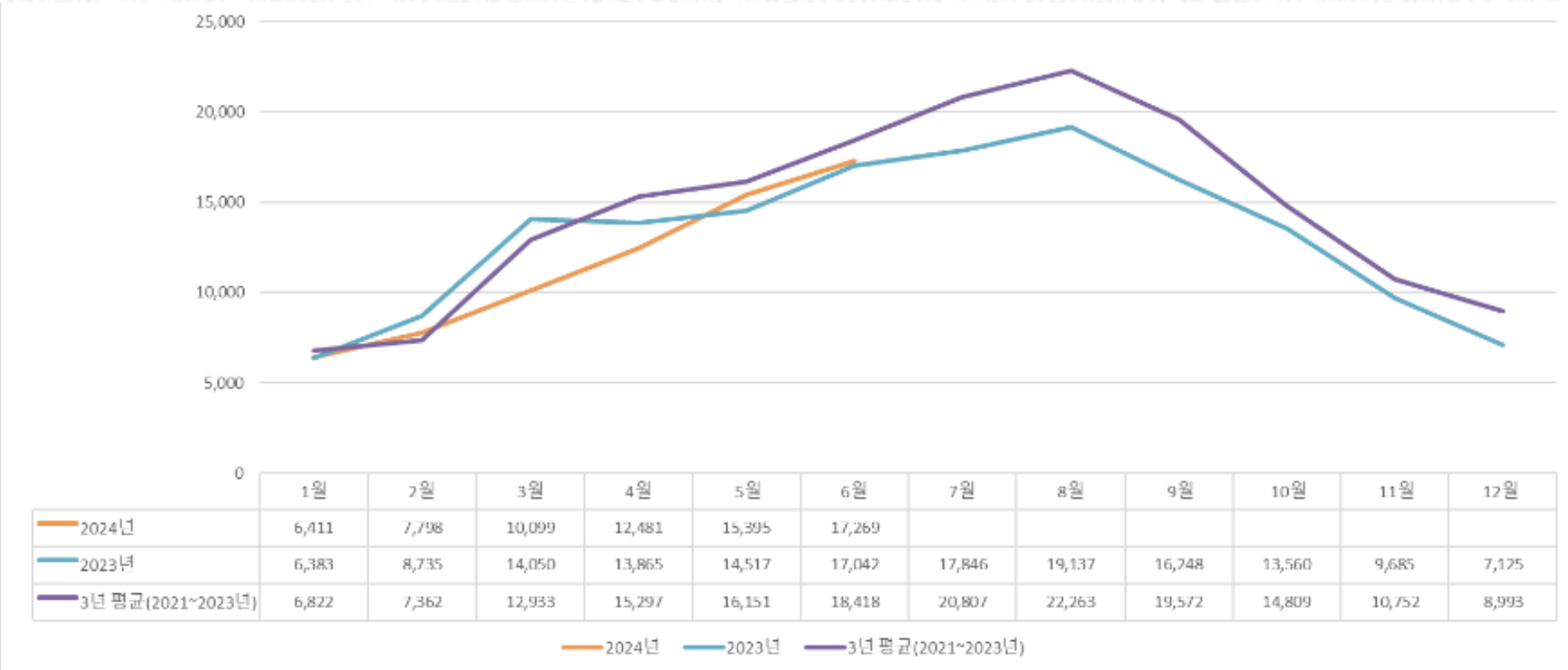
월간 수산 이슈

뉴스클리핑

HOT ISSUE

- 배합사료생산동향 - 새우용 등 늘어 전년비 소폭 증가세
- 경남 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 1,300만 마리 육박...역대 두 번째
-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수과원

배합사료생산동향 - 새우용 등 늘어 전년비 소폭 증가세



지난 6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5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데다, 4~5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우 급성 간체장괴사병이 확산되면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양식업체 상당수가 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각종 양식경영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또한 올 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내외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만 7,269톤으로 전년 동월(1만 7,042톤) 대비 1.3% 증가했다. 반면, 3년 평균(1만 8,418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는 6.2% 줄어들었다. 2024년 1~6월 누적 생산량도 6만 9,454톤으로 전년 동기(7만 4,592톤) 대비 6.9% 감소했다.

▶ **넙치용: 사료 생산량 7개월 연속 감소**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359톤으로 전년 동월(1,621톤) 대비 16.2% 감소했다. 3년 평균(1,944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30.1% 감소했다. 2024년 1~6월 누적 생산량도 8,344톤으로 전년 동기(1만 1,821톤) 대비 29.4% 줄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넙치 육성물량은 1억 942만 마리로 전년 동월(1억 12만 마리) 대비 9.3% 증가했다.

이처럼 넙치 육성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생산량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종 양식경영비용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제주도 관내 양식장 10여 개소가 매물로 나오는 등 넙치 양식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넙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년과 같은 사료 생산량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월별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 추이 - 2021~2024년 6월

넙치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8,344	1,048	1,588	1,413	1,656	1,279	1,359						
2023년	22,272	1,361	1,867	2,543	2,566	1,863	1,621	1,411	2,252	1,564	2,121	1,826	1,277
3년 평균(2021~2023년)	23,257	1,330	1,476	2,464	2,353	2,055	1,944	1,820	2,113	2,077	2,163	1,781	1,682

▶ 조피볼락용: 종자 입식량 줄어 사료 생산량 감소세 예상

지난 6월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994톤으로 전년 동월(1,068톤) 대비 6.9% 감소했다. 3년 평균(1,044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4.8% 감소했다. 반면, 2024년 1~6월 누적 생산량은 4,115톤으로 전년 동기(4,055톤) 대비 1.5% 증가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조피볼락 육성물량은 1억 6,231만 마리로, 전년 동월(1억 6,406만 마리) 대비 1.1% 감소했다.

올 1~6월까지 종자 누적 입식량은 4,830만 마리로 전년(5,282만 마리) 및 평년(6,302만 마리) 동기 대비 각각 8.6%, 24.1% 감소했다. 이는 조피볼락 산지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다른 어종으로 품종 전환을 고려하는 양식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양식어종에 비해 육성기간이 길어 폐사율이 높은 만큼, 고수온에 강하거나 육성기간이 짧은 양식종으로 대체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월별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생산량 추이 - 2021~2024년 6월

조피볼락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4,115	329	446	580	720	1,044	994						
2023년	9,342	327	302	587	922	849	1,068	1,012	878	1,220	905	846	425
3년 평균(2021~2023년)	9,860	334	328	521	874	776	1,044	1,044	1,090	1,334	1,090	876	551

▶ 새우용: 본격적인 새우 출하 앞두고 사료 생산량 증가세 전환

지난 6월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새우 출하시기를 앞두고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3,569톤으로 전년 동월(3,407톤) 대비 4.8% 증가했다. 3년 평균(3,579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는 0.3% 소폭 감소했다. 2024년 1~6월 누적 생산량도 8,487톤으로 전년 동기(1만 1,312톤) 대비 25.0% 줄어 들었다.

지난 5월말 전남 무안과 6월초 충남 태안에 이어 8월초 전남 고창 소재 새우 양식장에서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이 발병했으나, 전년과 같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올해도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 등 질병 확산 여부에 따라 새우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생산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월별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 추이 - 2021~2024년 6월

새우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8,487	85	407	632	1,290	2,503	3,569						
2023년	20,624	423	982	1,779	2,096	2,625	3,407	3,845	3,269	1,860	224	67	46
3년 평균(2021~2023년)	23,196	291	462	1,040	1,849	2,677	3,579	4,661	5,136	2,780	545	83	94

경남 고수온에 양식어류 폐사 1,300만 마리 육박...역대 두 번째 -통영·거제·고성·남해 262개 양식장... 조피볼락·볼락·숭어 등 10개 어종 폐사



고수온으로 경남 남해안에서 양식어류가 1,300만 마리 가까이 폐사해 피해 규모가 역대 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22일) 하루에만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양식장 111곳에서 양식어류 678만 마리가 폐사해 누적 피해 신고량이 1,298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경남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지난 16일 첫 폐사 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64만 마리, 20일 127만 마리, 21일 335만 마리, 어제(22일) 678만 마리가 폐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1,466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 20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우럭 150만마리 '떼죽음' · 20억원 피해 - 충남 천수만



고수온 경보가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충남 태안 천수만 양식장에서 폐사한 우럭이 15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41개 어가가 참여해 운영하는 6개 양식장에서 우럭 158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1일 55만마리였는데, 1주일가량 사이 100만마리 가까이가 더 폐사한 것이다.

피해액은 20억원에 육박한다.

대야도 양식장에서 가장 많은 56만6천여마리(이하 피해액 7억여원), 구매 양식장 37만8천여마리(5억5천여만원), 탄개 양식장 28만1천여마리(3억6천여만원), 장곰 양식장 24만2천여마리(2억여원)가 폐사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뒤인 21일 오전 9시 30분에도 대야도 바닷물 온도는 표층 29.9도, 중층 30.0도에 이르렀다.

'폭염'으로 여수 가두리 양식장 82만여 마리 폐사



여수시 남면과 삼산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수온에 따른 양식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면 양식장 3곳에서 우럭·숭어 19만 마리가 폐사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삼산면 거문도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우럭·능성어·돌돔 등 63만 마리가 폐사했다.

여수시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양식 물고기 폐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 어업생산과는 19일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과 추가 조치에 이어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정부에 복구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수온에 따라 수일 전부터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어민과 함께 양식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수온에 폐사한 강도다리 - 포항



고수온으로 경북 동해안에서도 양식장 어류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오늘(22일)까지 포항 지역 양식장 27곳에서 어류 119만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

주로 고수온에 민감한 해수 표층수를 끌어다 쓰는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피해가 집중됐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지난 12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포항시 연안 표층 수온은 한때 29.8도까지 치솟았다.

포항시는 액화산소 821톤, 순환펌프 797대, 얼음 500여톤을 양식 어가에 긴급 지원했다. 포항 지역은 93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317만 마리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다.

고수온으로 피해가 큰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장은 포항에서 40곳이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7월 24일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수과원은 남해 중부~동부 연안에 대해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현장을 방문하여 양식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하여 어업인에게 맞춤형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필 예정이다.

제주, 양식장 고수온 피해 급속 확산...재난기금 긴급 투입

- 제주도내 60개 육상양식장, 넙치 등 17만마리 폐사
- 계속된 폭염에 피해 늘어...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지원키로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 서부지역 육상양식장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첫 고수온 피해가 신고 접수된 후 현재까지 제주도 내 양식장 60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이 가장 많았다. 조천읍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서부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는 넙치(광어) 등 17만6000마리(140톤)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육상양식장에 어체 활력 증강을 위한 면역증강제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역부족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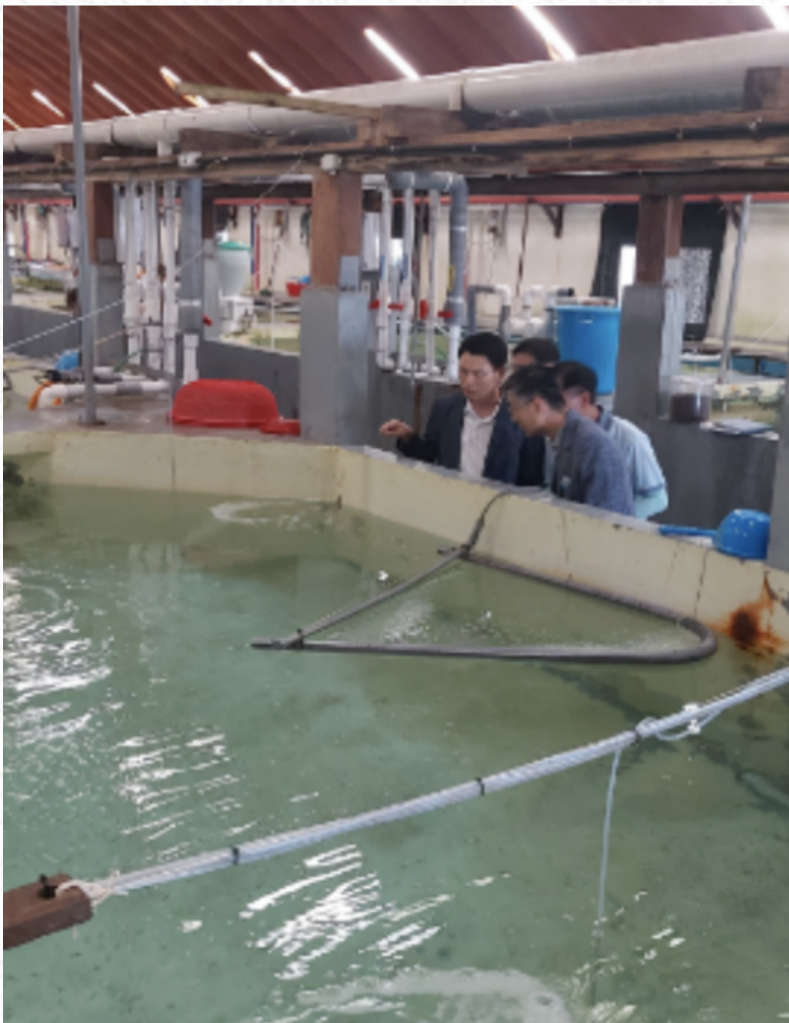
이에 제주도는 피해 확산에 대응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액화산소 구입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육상양식장 민생투어 당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가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수온 시기에 육상양식장에서는 사육수의 용존산소 감소로 인한 광어 폐사를 막기 위해 다량의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93개소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총 11억 1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수온 극복 양식품종 개발 도전 - 거제시



정석원 거제시 부시장이 고수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와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5일 어업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어종 개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연구기관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허영백 남동해연구소장은 “고수온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식품종 개발을 위하여 사료 연구와 함께 다양한 아열대 어종의 친어를 확보했으며, 일부는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에는 월동이 가능한 해역이 입지해 있고 행정과 어업인의 의지가 강하므로 불바리 등 종자생산이 가능한 어종에 대해 시범양식이 가능하도록 거제시와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021년 7,809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양식업체는 2022년 325만 원 적자로 돌아선 다음 지난해에는 8,546만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 예측시기 앞당겨 -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여름철 남해안에 주로 발생하는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주 간격으로 제공하던 속보를 매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예측을 진해만 내측 3개 해역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표층수온이 높아지면 바닷속의 차가운 저층수가 표층과 섞이지 못하면서 저층의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바닷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내만에서 발생하여 양식생물의 폐사를 일으키는 등 양식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수과원은 산소부족 물덩어리 실시간 부이관측시스템을 2015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총 18개소로 확대하였다.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주로 발생하는 5월부터 11월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수온과 용존산소 자료를 관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수과원은 실시간 부이관측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소부족 물덩어리 출현을 3일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을 진해만 3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수과원은 향후 AI 기반 산소부족 물덩어리 예측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